

DREAMMAKER

Vol
69

2022 WINTER

HWASEUNG Life Magazine



dream-maker?

한 번쯤 이뤄내야 할 나만의 꿈인가,
다 함께 만들어야 할 모두의 꿈인가.
꿈을 만들고 다 같이 이룰 수 있다면 드림메이커?

dream-maker!

한겨울 눈발에 첫 발자국을 찍어
한바탕 일장춘몽이 되지 않도록
꿈을 실현하는 화승, 화승인이야말로 드림메이커!



CONTENTS

2022 WINTER Vol.69

총괄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팀장

화승그룹 홍보팀 심일욱 선임

화승R&A 이자학(기획팀 선임)

화승소재 임상호(영업관리팀 팀장)

화승T&C 박건국(관리팀 사원)

화승인더스트리 이성수(IR/경영관리팀 매니저)

화승케미칼 한동민(경영지원팀 매니저)

화승네트웍스 김기훈(전략기획팀 선임)

베트남 화승비나 정영섭 차장

미국 화승코퍼레이션 ARHQ 최일영 책임

중국 화승코퍼레이션 CRHQ 문지훈 선임

2022년 12월 23일 발행(정보간행물)

신고번호 연제, 바00003

신고일자 2016년 8월 30일

발행인 현지호 편집인 김정식

기획·진행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심일욱

편집·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02-515-3681)

표지 일러스트 전서현

인쇄 우일인쇄

펴낸 곳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메일 illwook.sim@hscorp.com

04 Let's 70

역사로 기록된 화승 70년,
미래로 기억될 화승 100년

SPACE

10 Image Making Film

화승, 꿈을 만들어내는 드림메이커^{Dream-maker}

16 Maker 01

함께 돕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20 Maker 02

꿈꾸고 사랑하고 나누며
드림 메이커^{Dream-maker}

24 Maker 03

현수명 & 현승훈,
화승이라는 꿈을 만들어낸 드림메이커

28 Maker 04

왜, 수소경제를 말하는가

10



SHUTTLE

36 포토-모놀로그

일 + 삶 = 꿈

40 화승 리포트

화승케미칼,
克 혁신기업으로 방송에 소개되다

44 화승 핫라인

꿈 너머 꿈을 위해 꿈쟁이로 나선 고도원

50 타이거 마스크

걸어가듯 달려가는 꿈을 찍고 싶다

54 화승 핫스팟

화승과 함께하는 감동과 열정의 영화 축제,
2022 제31회 부일영화상

44



STATION

60 편화승 큐레이션

하프의 선율처럼 부드러운 half

64 화승 컬렉션

일.잘.러가 선택하는 기록 톨, 노션^{Notion}

68 화승 문고

걸면 걸리는 걸리버, 꿈에 걸리게 하면 드림메이커

72 네트워크 뉴스

74 화승 노스텔지어

화승 1980s, 다 함께 풀어봅시다

76 화승 社告

77 화승 빌드-업

80 화승 가이드

화승그룹, 화상회의 에티켓

60



역사로 기록된

화승 70년



미래로 기억될

화승 100년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시작의 순간, 고통의 과정, 성장의 기쁨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2022년 화승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동안 사보(社報)를 통해 잘나의 선택,

순간의 행동, 기억의 과정이 70년 화승의 역사로 기록되었다.

화승그룹 사보는 초창기 타블로이드 신문형 소식지에서

1983년, 잡지 판형으로 바뀌었으며 외형 변화에 따라

경영이념인 ‘인화(人和)’를 표제로 사용하였다.



시대적 변화와 상황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업 여건상

1998년 1월을 끝으로 잠정 휴간을 맞았으며

2000년대 복간되면서는 ‘화승 라이프 매거진’으로 제작 외연을 넓혔다.

화승 전 임직원들을 위한 소통창구이자

기업 이미지 제고 및 홍보 역할을 담당해온 사보,

진보적·실험적 콘텐츠와 디자인으로 동종업계에서 주목받기도 했다.

기업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소명으로,

미래로 기억될 화승 100년 또한 사보에 기록될 것이다.



SPACE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날로 새롭고
또 새로워진다’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그 새로운 날들이 모여
화승 7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환경을 헤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꿈을 향해 매일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01



**화승,
꿈을 만들어내는**

드림메이커 Dream-maker

꿈이란 무슨 뜻일까요?

실현하고 싶은 희망, 이상을 꿈이라고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적은 헛된 기대, 생각도 꿈이라고 합니다.

꿈, 낱말 하나에 상반된 의미를 담고 있는 역설적 단어입니다.

Dream-maker, 어떤 의미일까요?

꿈을 만들고,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꿈을 이룩할 수 있도록 도움과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Dream 낱말에 maker를 조합, 상호작용하게 된 단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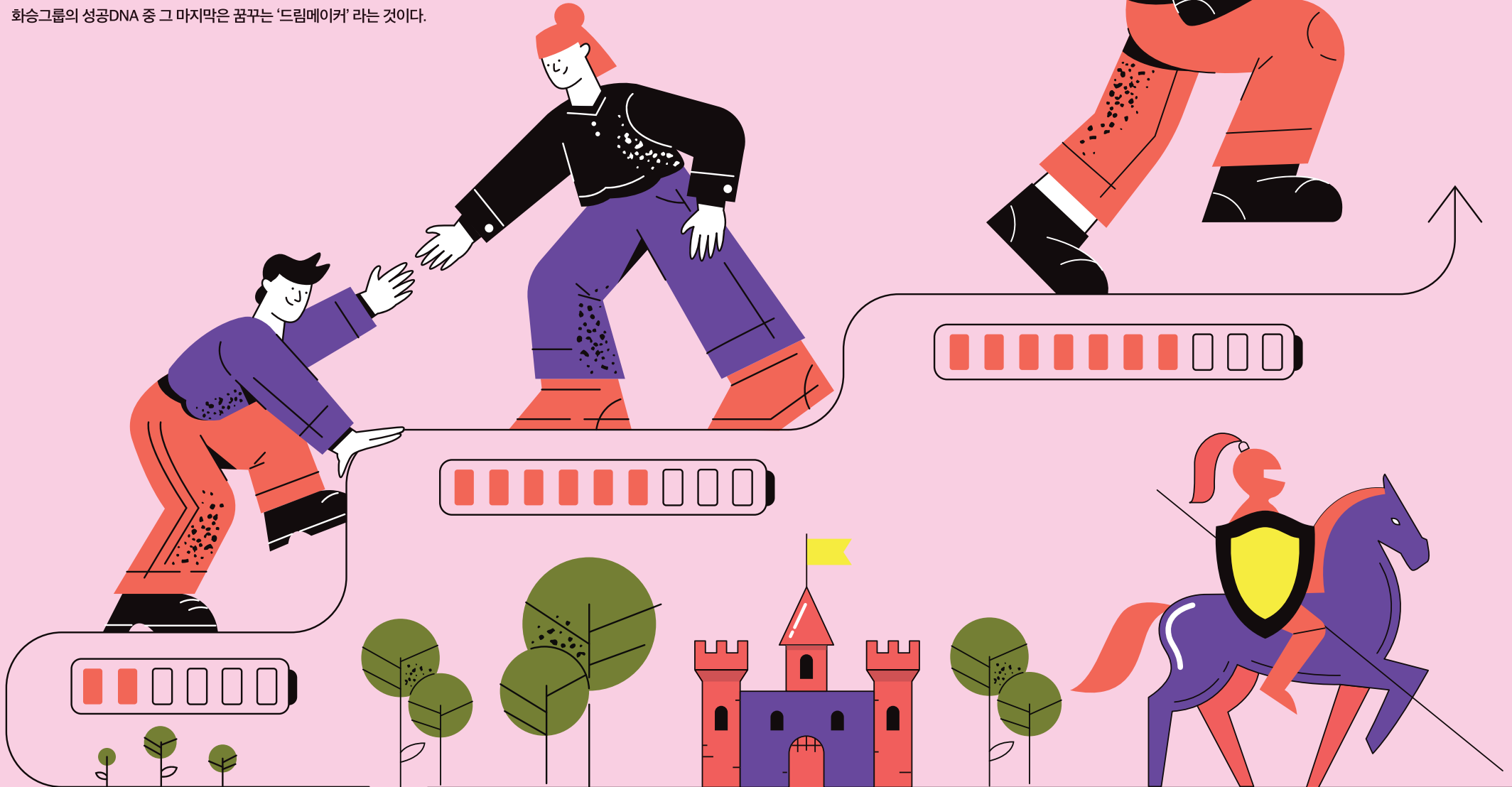
처음부터 모든 걸 혼자 이룰 수 없는 꿈,
그래서 모두에겐 드림메이커가 필요합니다.
드림메이커, 자신의 꿈을 만들고
서로의 꿈을 함께 만들어내는 존재입니다.

70년 화승의 길,
꿈을 향한 길이자 꿈만 같은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을 한데 모아
꿈을 만들고 이룩해왔습니다.

화승, 화승인이라는
드림메이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돕는 꿈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사람은 꿈꾸는 존재이다. 동물들도 꿈을 꿀 지 모르겠지만, 실제 꿈을 꾸다고 하더라도 그건 단일 개체가 꾸는 단순한 꿈에 불과하다. 사람은 꿈을 꾸며 '사람'이 되었다. 호모 사피엔스가 그 시대 경쟁자인 네안데르탈인을 제치고 지금에 이른 건 상상력, 바로 함께 꾸는 꿈 때문이다. 70년 동안 동시대인들과 당대의 꿈을 함께 꾸며 현실의 제품으로 만들어온 화승그룹의 성공DNA 중 그 마지막은 꿈꾸는 '드림메이커' 라는 것이다.



그대의 꿈은 아직 살아있는가?

이반 세르게예비치 투르게네프는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더불어 러시아 문학의 3대 거장으로 불린다. 그는 세상 속 인간의 유형을 '햄릿형'과 '돈키호테형'으로 분류하였다.

두 인간 유형은 냉정과 열정 사이, 사유와 행동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비교된다. '햄릿형 인간'은 숙부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하여 거듭 고민만 하는 우유부단하면서 신중한 유형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만큼 그로 인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유형이다. '햄릿형 인간'은 뛰어난 자각과 통찰력을 지녔지만, 실천력의 부족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돈키호테형 인간'은 목표를 향하여 무모할 만큼 도전하는 유형이다. 즉흥적인 감정과 실수를 반복하지만, 거침없이 행동하는 추진력이 있다. 바로 요즘 같이 격변하는 시대에서 더욱 요구되는 유형인 것이다. '돈키호테형'은 이상적 세상에 대한 풍부한 상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절대로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이를 위해 앞장선다고 한다.

이룰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우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견디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 세르반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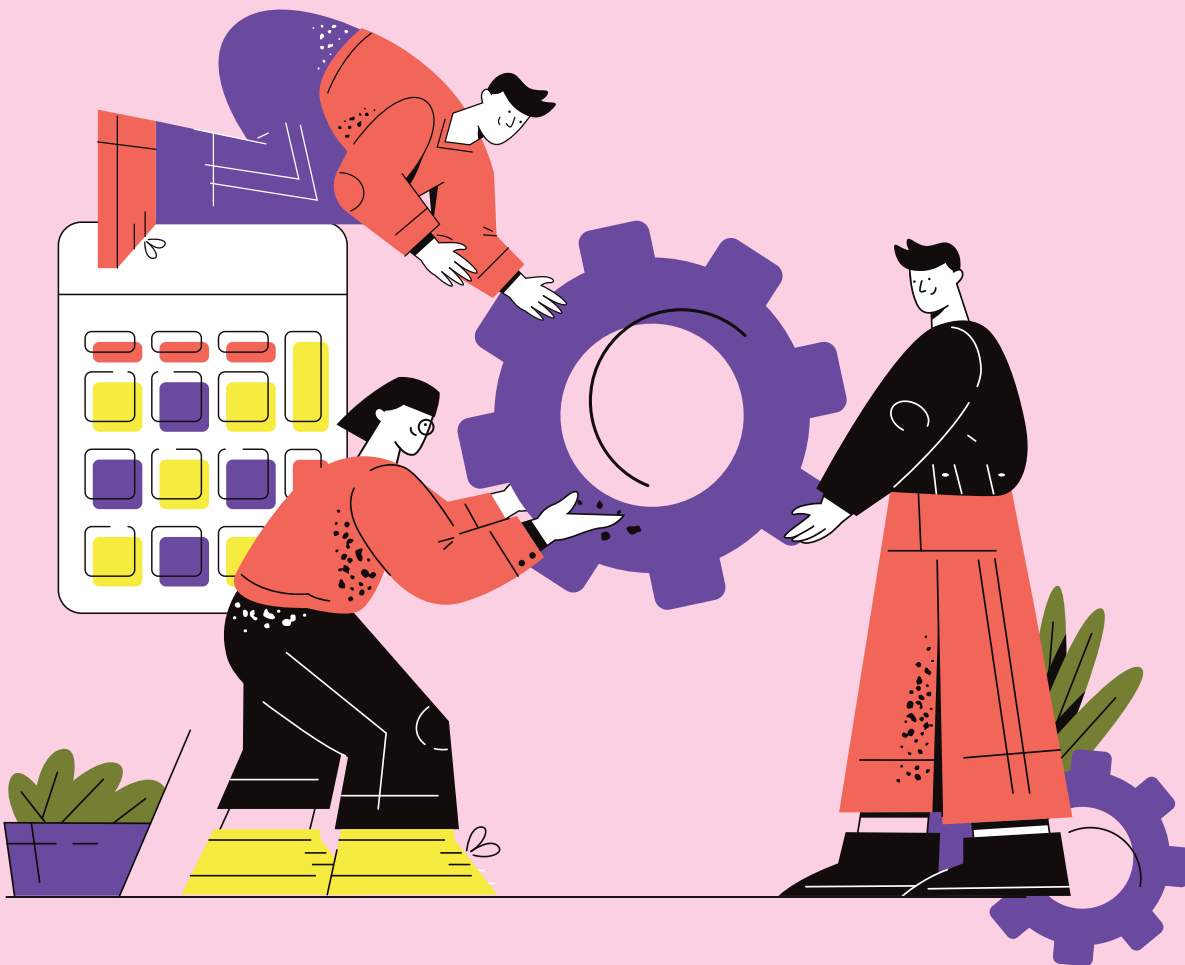
지금 시대는 더더욱 돈키호테형을 요구하는 시대이다. '괴짜' 스티브 잡스와 '너드' 빌 게이츠, '꼴통' 일론 머스크가 바꾼 세상을 보라. 아무리 꿈이 있더라도 이루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꿈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그러니 다시 꿈꾸라, 누가 뭐라든 풍차를 향해 달려드는 돈키호테처럼, 진짜 내 꿈을 향해.

꿈이라는 자렛대로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사람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생존한 이유도 집단을 이루어 공동체 생활을 하며 함께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뜻모를 자연현상에서 신의 존재를 상상해내고 신을 위해 문화를 만들고 생존의 꿈을 쟁취해온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의 공동체 생활이 이전 조직이자 팀으로 진화하였다.

좋은 조직에는 반드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공동의 꿈인 비전과 열정이다. 승리 혹은 성공은 열정의 문제이다. 열정은 싸우기 전에 이미 승리를 결정한다. 열정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접합체이다. 그 열정은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한다.

혹 열정을 잃었다면 내 자신 속의 잊고 있던 보물, 꿈을 발굴해보자. 모든 사람은 자기 내부에 엄청난 매장량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되는지는 그 자신도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만족스런 삶을 감수해야 한다. 지금은 평균적 삶이 가능했던 산업화 시대가 아니라 평균은 실종되고 '재능의 시장가치'가 중요해진 디지털 지식사회이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꿈을 향해 다시 달려 나가야 한다. 각자의 꿈으로 뭉친 팀은 힘이 세다.



꿈을 널리 공유하라!

오늘날은 이전 어느 시대보다 새로운 기술 덕분에 신화적 거물이건 회사 CEO이건 초보 전문가이건 누구나 자신의 꿈과 비전을 빠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다. 동시에 고객들은 더 많은 것들을 원한다. 더 높은 가치와 소셜 미디어를 통한 상호작용을 원한다. 바로 이 시점에서 '남의 꿈을 돕는 사람', 드림 메이커(Dream Maker)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 꿈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시대는 저물었다. 이제는 먼저 남의 꿈을 도와야, 그 결과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지식사회'이다. 지금은 '소유'보다 '공유'가 중요한 시대이다. 내가 가진 노하우, 지식을 팀원들과 나누고, 최고의 업무방식을 업데이트해나가야 더불어 성공할 수 있다. 지식과 소통을 독점하는 독불장군이 성공하는 시대는 과거의 이야기다.

당신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목재를 가져오게 하고
일을 지시하고 일감을 나눠주는 일을 하지 말라.

대신 그들에게 저 넓고 끝없는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줘라.

- 섹터쥬베리

누구나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자신만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 거창한 메시지가 아니라도 공유하고 교류하라. 그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꿈을 이야기해주면 된다. 그것이 드림메이커의 비전이고 가치이다. 끊임없이 꿈을 환기시켜주며 많은 이들을 도우며, 저절로 내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은 꿈을 나눌수록 커지는 드림메이커의 시대이다. 70



꿈꾸고 사랑하고 나누며

세상의 변화를
먼저 공유한 선지자들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 &
변화경영전문가 구본형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여기 누구보다 먼저 시대의 변화를 얘기하고 세상에 비전을 제시하거나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 영향력자, 바로 드림메이커들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얼핏 자신의 성공에 몰입한 듯 하지만 기실은 공동체의 비전과 꿈을 도와주었다는 것. 그것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간파한 사람들이란 뜻이다. 나는 너이고 나와 너는 우리이고, 우리의 꿈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그 본질을 꿰뚫어본 드림메이커들을 만나본다.

드림메이커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오스트리아 출생의 미국인이다. 20세기와 21세기 의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이다. 1950년대부터 22년간 뉴욕대학 경영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경영학이 독자적인 학문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했다. 또 왕성한 저술활동을 통해 경영학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수많은 저서를 발표했다.

1993년 발표한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에서 그는 지식근로자가 생산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견했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경영자’로 정의했다. 경영자가 배우는 학문이 바로 ‘경영학’이라는 것이다. 그의 경영학은 항상 인간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는데, 경영자들에게도 “노동자들을 부품이 아닌 인간으로 대우하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21세기에는 모든 지식 근로자들이 개개인의 경영자가 되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피터 드러커, 구본형. 2000년 3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언하며 회사를 떠난 그는 1인 기업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를 세웠고, 2005년부터 연구원을 선발하고 꿈벗들과 동행하며 ‘나’답게 살아가려는 이들을 도왔다. 10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여행했다. 변화를 꿈꾸는 이들의 내면에 잠든 열정과 비전의 불꽃을 점화시켜 삶이 아름다워지도록 도왔다.

인문학과 경영학의 다양한 접점을 통해 시대의 화두를 발견했고, 변화와 성장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즐겼다. “모두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정작 스스로 변화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한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변화의 시작은 자기혁명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내년이면 작고 10주기이다. 여전히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는 운영되고 있으며, 아직도 그의 책을 인생책으로 꼽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진정한 드림메이커는 시대 변화를 먼저 포착하고 알려주는 선지자임을 보여주는 인물이라 할 수 있겠다.



세상에 비전을 제시한 선구자들

이케아 창업자 잉바르 캄프라드 & 파타고니아 창업자 이본 쉬나드

세계 최대의 가구 판매회사 이케아는 잉바르 캄프라드가 열일곱 살에 차린 사업체이다. 부모님의 농장 창고에 처음 회사를 차리고, 가구통신판매라는 블루오션을 개척한 캄프라드. 이케아(IKEA)라는 이름은 창업자 잉바르의 이름과 주변 환경을 조합해서 만든 명칭이다. 자신의 이니셜 I와 K, 그가 자란 농장 엘름타리드의 앞글자 E, 그리고 그의 고향 아군나리드의 A를 따서 브랜드명을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케아의 로고와 매장 외벽은 조국 스웨덴 국기를 연상시키는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로고와 매장 외벽을 디자인했다.

캄프라드는 평생 검소하게 산 것으로도 유명하다. 날마다 도시락을 싸서 낚은 차를 손수 몰고 출근했고, 자원을 최대한 절약했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캄프라드는 이케아재단을 설립하여 세계 곳곳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학교를 짓고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운이 좋지 않은 이들을 도와야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미국의 유명한 아웃도어 기업 파타고니아 창업자인 이본 쉬나드는 친환경 기업가로 유명하다. 등산 애호가였던 이본 쉬나드는 자신이 바위에 박은 피톤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 그리곤 매출의 절반 이상이었던 피톤 생산을 중단해버렸다. 그 이후, 100% 유기농 목화만으로 옷을 만들고, 패딩의 깃털도 이미 죽은 거위에서만 확보하고 있다.

올해 9월 이본 쉬나드는 놀라운 선언을 했다. 자신과 가족 구성원의 모든 지분을 환경단체와 비영리재단에 양도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힘을 보태겠다고 한 것이다. 쉬나드 일가의 지분 가치는 약 4조 2천억 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쉬나드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사람과 지구를 우선하는 사업의 새로운 방식을 제시한 것이다. 이케아의 잉바르 캄프라드와 파타고니아의 이본 쉬나드 회장, 힙한 브랜드 이미지만큼이나 깊은 영감을 보여주는 드림메이커이다.

세상을 밝히는 선한 영향력자들

골프여왕 박세리 & 기부천사 가수 선

1998년 6월은 뜨거웠다. 5월 중순 미국에서 불어 닥친 ‘박세리 열풍’이 국내를 강타했기 때문이었다. 온 국민이 힘들어 하던 IMF의 어려운 시절, 미 LPGA투어에서 생성된 ‘박세리 성공 신화’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특히 98년 US여자오픈 20홀 연장 승부, 티샷이 해저드에 빠지자 양말을 벗고 물에 들어가 처낸 뒤 기사화생하는 박세리의 투혼은 온 국민의 가슴 속에 감동의 순간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박세리는 대한민국 여자골퍼들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 여자골퍼들에게도 꿈과 영감을 줬다. 2006년부터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1위에 한번이라도 오른 경험이 있는 선수는 모두 16명이다. 이들 중에서 아시아 지역 출신 선수들은 무려 11명이나 된다. 이 숫자만 보더라도 아시아 지역 골퍼들이 세계 여자골프 무대에서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아시아 여자골프의 막강 파워의 뿌리는 바로 박세리이다. 박세리는 앞으로도 영원한 골프여왕이자 수많은 세리키즈들에게 인생의 전환점을 안겨준 진정한 드림메이커이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부천사’하면 떠오르는 인물, 가수 선이다. 부인 정혜영과 함께 2004년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기부, 봉사 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들 부부가 개인적으로 벌어서 전 세계 어린이 800명을 후원하는 등 그동안 기부한 금액이 50억 원에 이른다.

“행복해서 나눈다.” 달리는 기부천사 선의 기부철학이다. 뛰면서 기금을 모으고 마라톤, 사이클, 수영을 병행하며 어렵게 모은 돈을 아낌없이 기부한다. “나눔은 행복의 연장선, 우리 가정에서 차고 넘치는 행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게 바로 진정한 나눔이다”라고 말하는 선. 그는 선한 영향력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아름다운 ‘드림메이커’이다. 79



현수명 & 현승훈, ‘화승’이라는 꿈을 만들어낸 드림메이커^{Dream-maker}



역사가 승리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여기엔 꿈의 과정이 담겨있다. 맨주먹 맨바닥에서 시작한 기업이 반세기를 넘어 100년 비전을 갖는 건 꿈을 만든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가능하다. 화승 70년을 앞두고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업’을 위해 초석을 세우고 반석을 다진 드림메이커, 현수명 선대회장과 현승훈 회장을 만나본다. ‘화승’이라는 꿈의 과정을 역사로 만든 두 주역을 통해 드림메이커의 존재와 그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자.

‘꿈’의 초석을 바로 세운 현수명 선대회장

해방 이후 질긴 소재의 고무신 수요가 늘고, 전쟁으로 파란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1950년대 부산에서는 신발제조업이 활황이었다. 신발을 만들고 신어줄 공급자와 수요자가 밀집한 상황에서 신발 제조로 기업을 비롯해 지역의 발전,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현수명 회장이 실현하고자 한 꿈이지 않았을까.

1951년 부산 초량에 형제들과 함께 동양고무공업소를 창립하면서 그의 꿈은 시작되었다. 첫 신발 상표인 ‘東자표’ 고무신과 장화를 생산했으며 1953년 8월 7일에는 동양고무공업(주)으로 상호를 변경하면서 사장에 취임하였다. 명실공히 ‘화승’이라는 기업 역사의 초석이 이때부터 세워졌다. 뛰어난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을 포장하는 등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전략은 폭발적 수요로 이어졌다. 현수명 회장이 당시 가장 인기 있는 교통수단에서 영감을 얻은 ‘기차표’ 브랜드는 상표로 등록되면서 큰 이슈를 불러왔다.

없어서 못 팔고 줄 서야 살 수 있었던 기차표 고무신으로 화승은 부산을 지역 기반으로 한 ‘국내 1호 신발 기업’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다.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1960년에는 종사자 수가 2천 명에 이를 만큼 사세는 확장되었고 재계 17위까지 도약하였다. 발 빠르게 신발업계 리더로 회사를 이끌어온 현수명 회장, 1960년대 들어서면서 시장 트렌드가 바뀌고 있음을 인지하고 화학섬유를 사용한 케미컬슈즈 생산에 돌입했다.

도전에는 위험이 있고 성장에는 위기가 따르기 마련, 이 시기 회사는 법정관리와 세금체납이라는 오명을 들어야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현수명 회장은 방계회사로 풍영화성을 설립해 재기를 노렸다. 그 이후 대표이사로 업무에 복귀했고 1975년에는 고유 브랜드 ‘월드컵’까지 출시했다. 케미컬슈즈 생산을 위한-품질 향상 및 생산시설 확충으로그의 노력은 추후 미국 나이키사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는, 회생의 발판이 되었다.

1976년, 현수명 회장은 수출 증대로 국가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공로로 철탑산업훈장을 수훈했으며 1977년 숙환으로 유명을 달리하기까지 화승이라는 기업의 기초를 세우고 다지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척박한 시대, 부족한 물자 환경을 탓하지 않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고, 남이 하지 않은 일을 했던 화승의 드림메이커였다. 현수명 선대회장의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생각, 진취적이며 도전적인 행동은 지금의 화승을 바로 세운 초석이었다.

66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정말로 불가능하게 된다.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만으로도
절반은 성공한 것이다.

99

‘꿈’의 반석을 굳건히 다져온 현승훈 회장

선대가 꾸 꿈이 내 꿈이 되고, 이 꿈이 더 큰 미래를 위해 반석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 화승 현승훈 회장의 소망이자 바람이지 않았을까. 1966년 대학 졸업과 동시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현승훈 회장은 선친인 현수명 회장의 유교로 36세 젊은 나이에 사장에 취임했다. 당시 회사는 자본금 2억에 매출 외형 290억 원의 중소기업 수준이었다.

취임 이후 동양화공(현 ㈜화승R&A) 등 6개의 계열사를 설립하고 해외 기업들과 제휴하면서 내수 위주에서 수출 위주로 사업 전략을 전환했다. 신발을 생산하고 있던 동양 고무와 풍영화성의 수출창구를 위해 ㈜화승(和承)을 설립했고 글로벌 브랜드 나이키를 OEM으로 제조하게 되면서 부산을 신발산업의 메카로 만들었다.

1980년, 현승훈 회장은 인화(人和)를 경영이념으로 계열사를 통합, 화승그룹으로서 글로벌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이키사와 그동안의 생산 협력 관계를 정리하고 1986년, 자체 브랜드인 르까프(LeCAF)를 론칭했으며 대규모 신발 물량 공급을 위해 생산기지를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였다. 화승은 신발 부문 외에도 전자, 통신, 주택, 화학, 자동차 부품, 건설 등 12개 계열사를 지닌 그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나갔다.

1997년 다양한 사업군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지만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 IMF 금융위기를 피해갈 수 없었다. 화승은 부도로 인한 화의에 들어갔고, 현승훈 회장은 그룹 차원의 선택과 집중이 절실함을 깨달았다. 보유 부동산을 정리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이런 와중에도 새로운 비전이 필요했고, 구심점이 될 사업군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느꼈다. 하지만 현승훈 회장은 신발과 고무 사업만은 놓지 않았다.

사양산업으로 여겨졌던 신발을 만들지만, 화승은 더 이상 신발회사가 아니다. 화승은 현재 신발사업이 OEM에서 ODM으로 바뀌면서 총 5개 사업군(종합무역자동차 부품·소재·정밀화학·신발ODM), 국내외 35개 계열사를 갖춘 글로벌 그룹이 되었다.

자동차 부품 사업군인 화승코퍼레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화승R&A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대비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소재 사업군의 화승소재는 공격적인 해외 영업을 통한 글로벌 제품 시장점유율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며 종합무역 사업군의 화승네트웍스도 친환경 사업인 바이오 중유 사업, 원자재 구매 및 판매 사업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다.

정밀화학 분야의 ㈜화승케미칼은 최근 프리미엄 카케어 브랜드 카루미(Carlumi)를 론칭하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사업에 직접 나섰고, 스포츠 패션 ODM 사업군인 화승엔터프라이즈는 화승비나, 장천제화대련유한공사, 화승인도네시아 법인의 국내 상장사로 아디다스, 리복 운동화를 생산하는 ‘세계 제1의 신발공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감은 물론, 스포츠 의류사업으로 5년 내 매출액 3배를 목표로 질주하고 있다.

신발산업에서 갈고 닦은 고무 기술력을 토대로 화학, 소재, 자동차 부품, 종합무역에 이르기까지 현승훈 회장은 선대 회장이 세운 초석 위에 견고한 반석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렸다. 70년이란 부침의 시간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기술 경쟁력이 되어 화승 100년을 꿈꾸게 한다. 현승훈 회장, 화승 드림메이커로서의 살아있는 역사다. 70

66

가장 잘하는 분야를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변화무쌍한 기업 환경 속에서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

99



왜, 수소경제를 말하는가

우리는 현재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 얽힌 복잡한 변화의 과정에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왜 수소가 중요하고 그 수소경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고, 어떤 경제적 부를 창출해 줄 것인가. 이를 아는 것이 화승이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겠다. 왜, 수소경제를 말하는지 살펴해보도록 한다.

글 김국현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FL설계실 실장

수소경제가 대안이 될 수 있는 3가지 이유

수소경제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환경규제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기후변화로 일부 국가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이제 는 이 문제가 전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기에 국가마다 탄소 중립의 가치를 걸고 자국의 산업을 재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규제가 단순히 도덕적 가치를 넘어서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을 선점하려는 방향과 이어짐으로써 새로운 가치창조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패권이다. 이미 우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겪고 있다. 가게에서는 주유비가 뛰고 외식비가 오르는 것이지만, 국가 차원으로 보면 이는 안보와도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다. 이미 우리는 일본의 수출규제나 중국의 요소수 사태를 겪으면서 아주 사소한 물품 한두 개만으로도 우리 경제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는지 잘 알게 되었다. 하물며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가 받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에너지 자급률은 아주 낮은 상태다.

일본 자원에너지청에서 2018년도에 제작한 각 국가의 에너지 자급률을 보면 우리나라는 16%로 세계 33위에 위치해 있다. 그나마 원자력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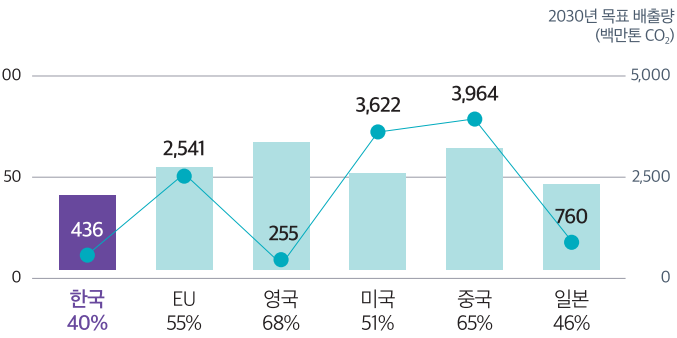
할 수 있다. 하지만 탄소중립시대가 되어 더 이상 석탄이나 석유로 에너지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때는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석유가 나지 않는 우리나라도 에너지 자립국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수소는 우리에게는 기회의 에너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소경제는 4차 산업에서 소외되었던 석유화학/중공업 등 이른바 중후장대(무겁고, 두껍고, 길고, 큰) 산업에는 기존 설비를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미래의 좋은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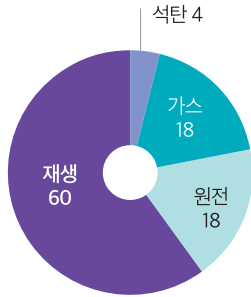
탄소중립에 대한 우리나라 및 글로벌 동향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란 무엇일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증가를 막기 위해 탄소의 배출량은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시켜 순배출량이 0(zero)이 된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을 맺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자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2050년까지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국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 한국도 2050년을 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등을 사용한 감축목표를 발표했고, 이 감축목표의 가장 핵심적인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할 수 있다.

주요 국가 NDC 목표 | 2030년 NDC 목표치(탄소중립 선언 후)



한국 기준연도 2018 도입기술 신재생에너지, 생태계 회복 달성연도 2050 2050 주전력원 석탄, 원전, 가스, 재생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탄소중립의 의지를 천명하고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공공 안전 확보를 위한 수소법을 2020년에 제정하였다. 21년도에는 이를 실천할 수소경제 로드맵도 구성하였다. 이것이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으로 총 4대 전략, 15대 과제로 수소의 생산과 유통, 활용에 이르는 기본계획을 정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소의 생산은 청정 수소로 일컬어지는 그린 수소 생산을 늘리고 자급률을 올리기 위한 기술개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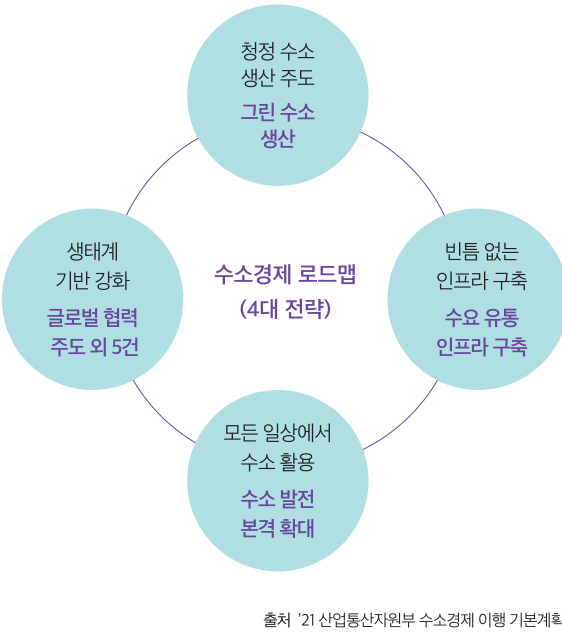
이 중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생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어떻게 국내로 수송할 것인지, 이 수송에는 어떤 재질로 변환할 것인지와 같은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 또한 유통 부분에서는 만들어진 수소를 이송하기 위한 방식과 이를 개인과 산업에 공급해주기 위해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용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어떤 주체가 어느 정도의 양으로 소비하고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에 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에너지 활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부문에 있어서는 수소를 활용한 수소발전 등 현재 화석연료 연소방식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일정 등이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 암모니아의 가치와 발전 전망

탄소중립에 대해 얘기할 때 태양광, 풍력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나 수소를 많이 떠올리지만 암모니아도 수소와 같이 신재생에너지를 수송하기 위한 변환 물질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에너지 중 하나다. 암모니아는 현재도 비료로 많이 쓰이는 물질이다. 하지만 독성이 있고 사용상의 한계로 인해 비교적 덜 연구된 에너지이지만 탄소중립과 맞물려 다양한 용도에서 가치를 재평가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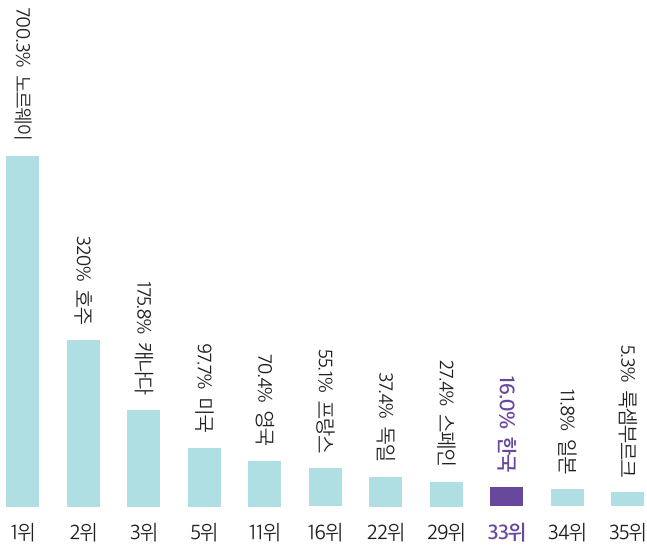
암모니아는 2가지 측면에서 수소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첫 번째는 수소나 전기를 운반하는 캐리어로서의 역할이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서 국가 전체 에너지를 자급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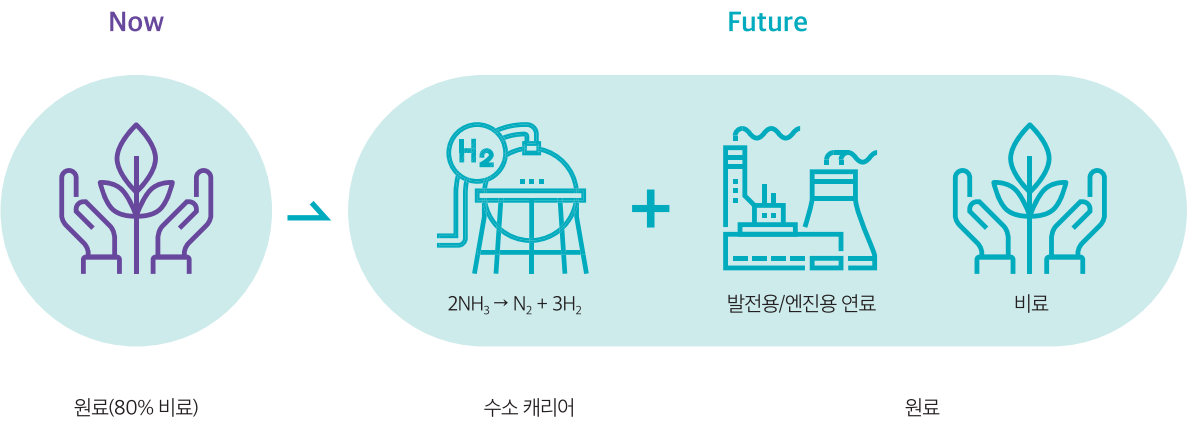
출처 '21 산업통산자원부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주요 국가별 1차 에너지 자급률(2018년)

자료 일본 자원에너지청



암모니아의 현재와 미래 | 암모니아의 용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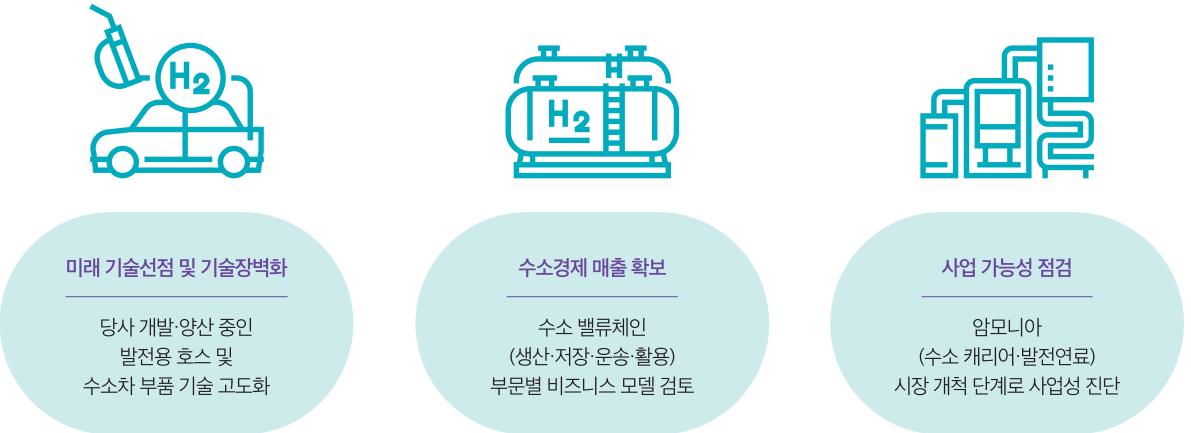
지를 수입해야 한다. 특히 호주나 남미, 동남아 등에서 생산된 값싼 태양광 전기를 수입해서 이를 대체하는 것을 강력한 대체 수단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가져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다. 전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케이블과 같은 연결 수단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여러 변환 수단을 거쳐 수소로 변환시킨 후 국내로 들여와 이를 전기로 다시 변환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이마저

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수소로 변환하는 것도 변환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수소는 부피가 커서 액화수소로 변환시켜야 하지만 그에 따른 손실이 46%나 된다. 이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암모니아가 사용될 수 있다. 액화 암모니아는 변환손실이 25%로, 액화수소에 비해 상당히 손실량을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암모니아는 석탄 발전을 대체할 재질로도 검토되고 있다. 이를 통해 향후 여러 산업계에서 암모니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화승, 수소사회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 방향 |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 필요



화승, 수소사회 대응전략 및 기술개발 방향

그렇다면 우리 화승은 앞으로 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방향에서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할까. 탄소중립까지 30년 남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여정이다. 사회 인프라는 미흡하고, 기술도 걸음마 단계다. 벌써부터 달콤한 과실을 생각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 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기회들이 많이 존재한다.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가진 기술과 장점들을 이 수소사회와 탄소중립 산업에 녹여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단순히 한두 가지 기술에만 국한해 생각하지 않고, 전 밸류체인을 넓게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산업들을 찾아야 한다. 우리 화승은 부품 제조를 통한 활용 부분에 강점이 있지만, 넓게 보면 생산과 저장, 운송과 같은 다른 밸류체인에서도 분명히 화승의 기술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암모니아와 같은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산업들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열어놓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어떤 산업이든 처음부터 만들어져 있는 산업은 없다.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선점하는 기업만이 그 새로운 가치의 과실을 먹을 수가 있다.

현재 우리 통합기술센터는 이를 위해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새로운 산업을 진입하기 위해 기초기술부터 정부와 대학/연구소 등과 함께 정부 과제로 진행해 나가며 새로운 가치 창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물용 연료전지 호스, 수소충

전소 호스 국산화 개발, 다양한 모빌리티에 사용 가능한 연료전지 스택가스켓, 가습기 호스 등을 개발하고 있다. 차세대 연료전지 부품개발을 위해 현대자동차 연구소 및 현대로템 연구소 등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가치를 위한 우리 화승인들의 관심과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할 때다.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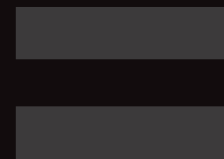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자동차산업이
다시 살아나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한
화승코퍼레이션은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소재,
종합무역 사업 분야의
계열사를 연결하는
GHQ(Global Headquarters)로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 사



꿈





주어진 시간을 움직인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다.
일이란 …….



알 수 없는 오늘을 산다.
하지만 더 많은 내일을 꿈꾼다.
삶이란 …….



꿈,
멀리 있지 않았다.
주어진 시간을 열심히 일하고
알 수 없는 오늘을 살아가니

꿈,
가까이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다.

화승케미칼, 克 혁신기업으로 방송에 소개되다

KBS 특집 7부작 시리즈 <2022 중견만리-기업 성장의 답을 찾다> 중 6번째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혁신기업'편에 화승그룹 정밀화학 부문의 대표기업 화승케미칼이 소개되었다. 참신한 기술력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중견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취지로 제작된 이 프로그램에서는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킨 화승케미칼의 현재가 담겨있다.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혁신

#성장

#인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화승케미칼

혁신적인 기술로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는 World Only, 화승케미칼이 지난 12월 4일 공중파에 등장했다. KBS 1TV 기술강국프로젝트, 중견만리(中堅萬里) 프로그램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삼아 세계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쥔 기업으로서다. 업체 선정 배경에 대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유정열 사장은 “화승케미칼은 세계 최초로 신발 자동 생산 공정개선을 위한 친환경 신발용 접착제 개발에 성공했으며 OSA 접착제를 사용한 생산 공정은 A신발 제조사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2025년까지 그룹 내 전 신발 공정의 50%까지 이 접착제를 사용하도록 이끄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고 전했다.

OSA(One-Side Adhesive)는 일반 접착제와 달리, 일정 시간 동안 열을 가하면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한 친환경 접착제 기술이다. 화승케미칼은 신발용 접착제품 분야에서 OSA라는 세계적인 기술 상표권을 인정받으면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게 되었다. 접착 관련 제품 다변화를 위한 또 다른 결실로는 타이어 업계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 것. 비타이어 업계 최초로 타이어 펑크를 자체적으로 메꾸는 접착 기술인 ‘타이어 실란트(밀폐제)’ 개발 성공 담도 방송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첨단기술에 대한 노력과 열정으로 가득한 산실

TV 방영을 위한 촬영은 지난 11월 화승케미칼 공장이 있는 충남 아산에서였다. 탤런트 이태곤의 진행으로 이루어진 이 프로그램에는 화승케미칼의 핵심 공간들이 소개되었다. 첨단기술을 위한 노력과 열정의 산실로는 1990년대 OPP 필름 생산을 위해 가동하기 시작한 아산공장을 비롯해 자동차 소재연구팀, 신발 소재연구팀, 합성피혁 수지연구팀과 신발 접착제를 개발하고 프라이머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는 부산 사상구 소재의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 그리고 다른 업계와 연계를 통해 가치 창출하기 위한 연구소 내 C&D(Connection and Development) 센터가 있다. 국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화승케미칼베트남법인(HSCV)도 함께 전파를 탔다.

화승케미칼은 필름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산업에 도전해오고 있다. 회사 내 연구소인 C&D 센터를 통해 신발과 자동차 소재, 잠수함에 스텔스 기능까지 부여한 코팅제를 만들어 기존 화학 분야뿐만 아니라 신사업과 친환경 부문에까지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남다른 노력과 기술 없이는 변화하는 시장을 주도할 수 없다는 이들의 열정은 연구소 및 생산 현장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인화(人和)로 하나 되는 화승케미칼의 조직문화

1953년 동양고무를 모태로 성장한 화승그룹, 1990년대 적자로 운영이 힘들어진 필름사업부 아산공장을 2018년 ‘화승케미칼’이란 이름의 정밀화학 분야 기업으로 출범시켰다. 그동안의 필름 기술을 이어받아 포장 비닐, 페트병 같은 필름 제품을 생산했던 화승케미칼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기존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업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창립 4년 만에 화승케미칼은 신발, 자동차, 코팅제로 사업영역을 넓혔으며 2020년 20억 적자에서 50억 흑자로 전환함은 물론, 지난해에는 88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시작 당시 70~72%였던 작업 수율(투입한 양 대비, 나온 양의 비율)을 높여보자는 우석훈 대표의 열의와 필름 공정상의 미세한 문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낸 현장 기술자들의 노력이 있어 위기를 극복한 혁신기업이 되었다. “화승그룹의 경영이념이 인화(人和)입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살고 화합하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것,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부대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도 생기고, 또 정이 생기면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되잖습니까?” 소통과 공감을 중시하는 화승케미칼 우석훈 대표의 말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이념, 인화는 큰 힘이 되었다. 일례로 화승케미칼베트남 법인에서는 사무실에서 격리하면서 밤에 혼자 나와 일한 직원이 있었는가 하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추지 않고 한국 관리자와 베트남 직원들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냈다.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고 기술력 향상을 위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지만 화승케미칼의 핵심적인 기술력의 원천은 사람에 있었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들과 어우러진 따뜻한 기업문화, 화승케미칼이 21세기 克 혁신기업일 수 있는 이유를 방송으로 재차 확인해보자. 70



고도가 높은 곳에 위치한 정원에서 보내는
홍보용 메시지인가? 아침에 출근해 메일함에서
처음 발견한 <고도원의 아침편지>에 대한
오래전 생각이 떠오른다. 편지를 발송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그 지속성이 놀랍고, 한 사람의 꿈이 만인의 꿈이
되어 이루어진 '깊은산속 웅달샘'이란
공간 또한 경이롭다. 꿈을 만들고 배달해온
이 시대의 드림메이커, 아침편지문화재단
고도원 이사장과 그 꿈의 터전을 소묘해 보았다.

dream-maker

꿈꾸고 꿈이든
꿈쟁이로 나선
고도원



꿈, 고도원의 아침편지에서 시작되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노신의 '고향' 중에서

그렇습니다. 희망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생겨나는 것이 희망입니다. 희망은 희망을 갖는 사람에게만 존재합니다. 희망이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고, 희망 같은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실제로도 희망은 없습니다.

2001년 8월 1일, '희망이란' 제목의 편지가 시작이었다. 2022년 현재,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고도원의 아침편지>는 발송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우리에게 아침편지를 보내는 이는, 뿌리깊은나무와 중앙일보 정치부 기사를 거쳐 김대중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을 지낸 고도원 작가다. 당시 메일함에 저장해 놓았던 친구 200명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기 시작한 아침편지는 현재 400만 명이 넘는 이들에게 마음의 비타민이 되고 있다. 어떤 계기로 그는 이런 대가죽을 이룰 수 있었을까.

“대통령연설문 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연설문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5년 동안 사흘밖에 못 쉬었어요. 그러다 중간에 번-아웃이 왔고요. 3시간 만에 눈을 뗀데 새소리, 바람 소리에 눈물이 나고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깨어났을 때 작가는 자신이 무엇을 놓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그날 이후의 삶을 덤으로 생각한다. 세속적 욕망도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워지면서 이타적 삶을 생각하게 된 작가는, 당시 온라인에서 이메일 계정이 확산되던 때라 그동안 쌓아온 방대한 독서량을 자산 삼아 메일링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샘처럼 아침편지를 쓸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작가 고도원은 글쟁이로서 타고난 면도 있고 시골 목사였던 아버지의 엄격한 독서 훈련도 한몫했지만 목사 아내로 온갖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아침마다 기도를 올린 어머니를 떠올린다.
“어머니 기도의 눈물이죠. 고통, 절망, 구렁, 가난을 탓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 기쁨으로 승화하셨던 어머니의 표정, 그런 어머니가 제겐 축복이었죠. 그 축복과도 같은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가 아침편지를 써온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갈등이고 상처고 아픔이지만 한 편의 시가 그렇듯, 돌덩이 같은 것을 반짝이는 기쁨으로 승화하잖아요.”





길, 지속 가능한 만인의 꿈으로 있다

아침편지로 시작된 이타적 삶을 향한 꿈은, 고도원 한 개인에 머물지 않았다. 작고 소박하게 시작한 행보는 마음으로, 물질로, 재능으로 연대하는 이들이 있어 공공재산으로서의 가치와 새로운 문화 현상이라는 희망으로 커지면서 더불어 함께 꾸는 꿈이 되었다. 그렇게 2004년 아침편지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 ‘사람과 자연이 만나 꿈을 이루는 곳’이라는 취지의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이하 깊은산속 웅달샘)를 개원하게 되었다.

“제가 종합병원이었어요. 기자로 일할 땐 아무 때나 먹고 급하게 써야 하는 기사 때문에 각성제도 먹고 때로는 수면제도 먹고요. 그러다 보니 간이며 폐가 나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졌죠. 지금은 고용량 비타민C 말고는 먹는 게 없어요. 그게 숲속에서 명상하면서 없어졌어요. 자연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회복된 거죠.”

충북 충주시 노은면 문성자연휴양림 안에 자리한 깊은산속 웅달샘은 작가이자 이사장으로서 그가 꾸는 ‘꿈의 종합편’이라고 한다. 아침편지가 마음의 비타민이라면 육신을 위한 처방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 이사장은 휴식, 운동, 명상, 마음수련 등 몸소 체험하고 경험한 것들을 프로그램화했다. 몸을 움직이는 가장 기본인 걷기를 비롯해 감각 하나하나에 집중하는-명상이라는-훈련을 위해 걷기명상, 향기명상, 음식명상, 독서명상 등을 만들었다. 이곳에는

명상을 기본으로 숙박, 기업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으며 원한다면 누구나 각종 교육 캠프와 다양한 문화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갈등과 분열, 괴로움에서 치유, 회복, 건강으로 가는 첫길을 내는 일, 힘들고 외로웠죠. 무너지고 쭈그러 앉고 싶었지만,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혼자 꾸면 황망한 것일 수 있는데 열 사람, 백 사람이 같이 꾸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꿈입니다.”

모든 게 처음이었다. 그렇지만 고도원의 첫 아침편지처럼 길을 내고 희망을 믿는 자에게 결국 꿈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한 개인의 꿈은 만인의 꿈으로 이어져 ‘깊은산속 웅달샘’이라는 길을 만들어냈다.

꿈 너머 꿈, 함께하면 이룰 수 있다

그동안 서른 권이 넘는 도서를 출간한 저자이기도 한 고도원 이사장, 그의 책에는 유독 ‘꿈’이라는 단어가 많다. ‘굳이 꿈이 있어야 할 까’를 반문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다소 공허하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꿈을, 그는 왜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일생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꿈을 물어봐 주는 순간, 당신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요. 꿈을 갖는다는 건 가슴에 북극성을 찍는 거예요. 길을 잃어도 북극성을 보면 방향을 찾을 수 있잖아요. 흔

들리는 삶에서 누군가를 통해 자발적 동기를 얻게 되는 것, 굉장한 의미죠. 저희 웰컴센터에 방문해보면 아시겠지만, 온통 꿈의 기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꿈을 이룬 과정과 실제 모델도 있잖아요.”

자신이 꿈의 과정을 거쳐온 실질적 모델일 수 있었다는 데 감사함을 덧붙이는 고도원 이사장은 꿈에 대해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들에게 “안 이뤄져도 괜찮으니 두려워 말고 시작하라, 당신은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 시작할 수 있다”고 독려한다. 그렇다면 꿈을 이룬 그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꿈 너머 꿈이죠. 넥스트 드림이자 비욘드 드림이에요. 나만의 것이 아닌 그 너머 다른 사람의 행복, 성공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꿈쟁이로서 할 일이죠.”

우리말 꿈쟁이, 드림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그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문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음식과 청소년 교육이다. 우리네 삶을 살리는 것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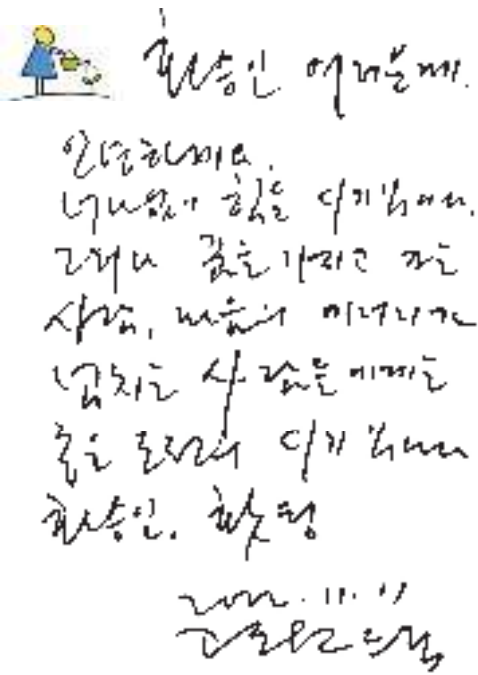
깊은산속 웅달샘에서는 ‘사람을 살리는 예술밥상’을 위해 음식연구소를 마련할 정도로 먹거리에 진심이며 링컨학교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언어, 독서, 스피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는 건강한 지도자 교육이자 성숙한 세계시민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최근에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 대한 한민족으로서의 자존감 고양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에도 동참하고 있다.

혼자 꾸는 꿈을 넘어 타인을 지지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세상을 위한 꿈, 더불어 함께 한다면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꿈쟁이 고도원 이사장이 꿈 너머 꿈을 강조하는 것, 바로 이런 의미와 가치 때문일 것이다. 고도원의 아침편지가 보여준 놀라운 효과가 이제는 꿈 너머 꿈 효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고대해본다.

“좋은 꿈은 사람을 움직인다. 그리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진화하며 세상을 움직인다.” 고도원의 『꿈 너머 꿈』 중에서

epilogue 아침편지로 시작된 삶의 행로를 섭리로 여긴다는 고도원 이사장,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그에게 지난 추석에 받은 한 통의 편지는 신선한 충격이자 기쁨이었다. 오랫동안 <고도원의 아침편지>를 읽으며 일과를 시작해온 화승 현승훈 회장에게서 온 진심과 응원이 담긴 편지 때문이다. ‘꿈을 가진 사람은 서로 만난다’고 했던가, 일면식 없이 매체로만 접해온 둘의 만남은 부산 화승원에서 이뤄졌고, 새로운 인연 또한 꿈처럼 시작되었다. 70

📍 아침편지 명상치유센터, 깊은산속 웅달샘
충북 충주시 노은면 우성1길 201-61
상담·예약 문의 1644-8421(godowoncenter.com)



화승인으로서의 이력과 현재 업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화승케미칼에서 근무 중이고요. 2010년 화승T&C로 입사해서 화승인더스트리, 화승첨단소재를 거쳐 화승케미칼 중앙연구소 자동차 소재연구팀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담당해온 업무로는 방위산업 아이템 스텔스 코팅재를 개발하였으며, 최근 몇 년 동안은 자사 프리미엄 카케어 브랜드 '카루미' 론칭을 위한 제품을 직접 연구·개발하였으며 현재는 B2C 판매확보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찍어오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대학 수능 이후 찍기 시작했으니 어느새 20년 정도 되었네요. 재미로 시작했는데 대학에 입학해서는 교내 행사나 모임에서 소위 찍사로 활동했습니다. 사진영상 동호회 활동도 했었고 화승에 입사해서도 취미로 찍었죠. 종종 지인들 행사나 결혼식에 도움을 주곤 했는데, 문득 '왜 남의 사진만 찍어주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내 사진을 찍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승인으로서의 업무가 사진에 영향을 끼쳤다고요?

카루미 브랜드를 만들면서 연구원으로서 많은 상상력이 필요했고 'B2C'라는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게 되면서 개인 취미인 사진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일상 업무 자체가 상상력과 나름의 제품개발 철학을 자꾸 머릿속에 되새기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취미였던 사진마저도 상상력과 철학을 가미시켜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레 스며들었어요. 그때부터 제대로 된 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22 부산국제사진제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나요?

예전엔 네이버 오늘의포토나 내셔널지오그래픽 국내판 등에 제 사진이 몇 번 실리기도 하고, 동호회 사진전에도 참여했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정신적·육체적 고충을 겪으면서 아이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사진 찍는 것에도 무게감을 덜어내고자 장비도 정리하고요. 그러다 우연히 아이와 길을 걷다가 부산국제사진제 소식을 접하게 됐고 자유전(개인전)에 출품 공모했습니다. 기대 없이 보냈는데 심사위원들이 좋은 시선으로 봐주신 덕분에 전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걸어가듯
달려가는
꿈을
찍고 싶다

“사진은 영원을 밝혀준 바로 그 순간을
영원히 포획하는 단두대이다.”
세계적인 사진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말이다.
순간의 미학을 담아내는 사진, 누구나 찍을 수 있지만
아무나 잘 찍긴 쉽지 않다. 순간의 미학에 천착한
화승케미칼 김지훈 선임이 사진을 쉽게 보지 않는 이유다.
화승인으로서의 삶에 무게중심을 두고, 걸어가듯
달려가는 꿈을 찍고 싶다는 그의 이야기에 주목해보자.





축하드립니다, 전시를 전람회 콘셉트로 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2022 부산국제사진제 개인전은 사진 전시와 부스 설치 등을 직접 준비해야 하기에 사진가로서 어쩌면 정면승부라 할 수 있죠. 2주간 최소 1만 명 이상이 관람했고, 'F1963'이라는 공간이 주는 느낌까지 더해져 만족한 전시였습니다. 말장난 같겠지만 전시보다는 전람회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사진가 기준에서 자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전시회라면 관람자들 기준에서 사진을 볼 수 있는 게 전람회거든요. 이번 부산국제사진제 저의 부스에서는 최대한 전람회적 요소를 넣어 관람자들이 다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사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진이 다큐 느낌이 강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근 2년간의 사진은 자연이 아닌 일상의 거리를 찍고 있습니다. 찍다 보니 '내가 부산을 많이 좋아하고 부산의 향토기업에 근무 중인 내가 이 도시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현상(Phenomenon)을 찍는 중입니다. 사진가 양리 카르티에 브레송의 '결정적인 순간(Decisive Moment)'을 모방한, 가벼운 주제로요. 다큐 사진은 종군기자가 찍거나 사회적 이슈를 고발하는 영역도 있지만, 일상에서도 자기 철학을 갖고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을 통해 관람자들에게 작게나마 감동이나 공감을 전해 일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다큐 사진의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이게 다큐 사진만의 특별한 매

력이죠. 결국은 내 사진을 찍는 것이니 이런 순기능이 연속으로 쌓이다 보면 제 작품으로 남겠죠(웃음).

이번 겨울호 테마가 드림메이커입니다.

드림메이커, 조직에서 어떤 존재여야 할까요?

일상에서 사진을 찍고 있지만 제 본업은 화승에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입니다. 드림메이커가 이번 겨울호 테마라고 하셨는데요. 드림메이커는 결국 상상력과 창의력을 뱉어내고 그것을 토대로 회사의 미래먹거리를 창출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것을 동력으로 기업 역사를 이어가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라고 할 수 있죠. 화승인으로서 뿌리에 영양을 공급하는 자양분 역할 또한 드림메이커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게 화승인으로서의 존재감이겠죠.

현재 꿈을 찍고 꿈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꼭 렌즈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우리 모두 꿈을 찍고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혈기 왕성했던 때는 느끼지도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현승훈 총회장님께서 하신 “걸어가듯 달려가라”는 말씀이 요즘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진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길이나 직장에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이나 모두 걸어가듯 달려간다면,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나무로서 꿈을 이룰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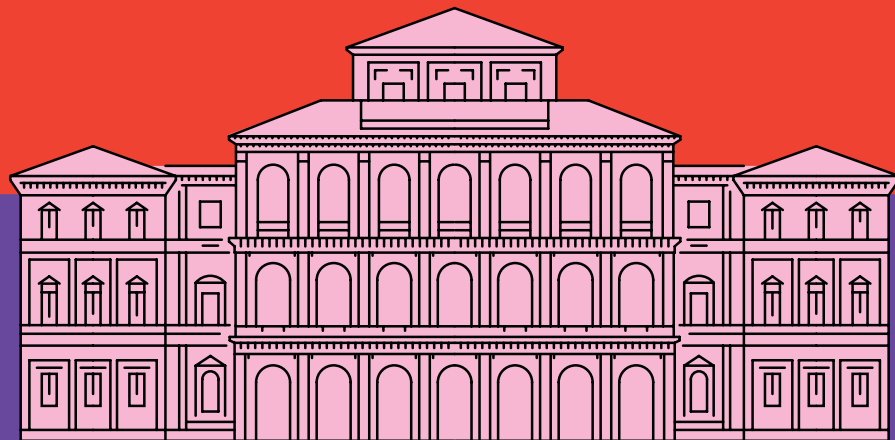
삶의 반을 사진과 함께 해왔지만 이제야 자기 삶을 투영한 사진과 마주 선 듯한 김지훈 선임. 그에게 2022년은 화승케미칼 카케어 브랜드 '카루미'라는 꿈을 만들어내고 '개인 사진 전람회'라는 꿈을 찍은, 드림메이커로서의 한 해였으리라. 일과 삶에서 찾은 가치를 자신만의 시선으로 담아낸 사진가이자 카루미 B2C 판매고 증진에 최선을 다하는 화승인, 걸어가듯 달려가는 그의 꿈에는 어떤 포즈와 메시지가 담겨질 수 있을까. 드림메이커 김지훈 선임만의 인생 샷이 포착될 수 있기를 응원해본다. 70

2022 BUILFILM AWARDS



화승과 함께한 감동과 열정의 영화 축제, 2022 제31회 부일영화상

대한민국 영화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일영화상,
코로나19로 무관중 행사였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많은 참가자와
취재진이 함께한 가운데 모처럼 시상식다운 열기를 더했다.
빛나는 배우들이 선보이는 감동의 영화 축제, 화승그룹이 협찬하는
2022년 제31회 부일영화상 시상식 현장을 스케치해보았다.



지난 10월 6일 '2022 부일영화상' 시상식이 부산
해운대구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되
었다. 부산일보가 주최하고 부산시와 부산국제영
화제 조직위원회가 후원하며 화승그룹이 협찬하
는 부일영화상은 올해로 31회를 맞이하였다. 지
난해와 달리 250여 명의 행사 참가자들과 50여
명의 취재진이 함께해 오랜만에 시상식다운 분위
기가 연출되었다.

본격적인 시상식에 앞서 레드 카펫과 핸드 프린
팅 행사가 진행되었다. 전년도 수상자였던 유아
인을 비롯해 김선영, 허준호, 하준, 이유미, 이숨
배우가 핸드 프린팅에 참여했으며 얼마 전 인기
리에 종영된 TV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서 개성 있는 연기를 선보였던 주현영·주종혁 배
우는 시상자로서 레드 카펫을 밟았다.



배우 김남길과 최수영의 사회로 진행된 제31회 부일영화상 시상식에서는 배우들의 재치 있는 입담과 수상소감으로 장내는 줄곧 감동과 웃음, 격려와 응원의 박수가 쏟아졌다.

신인 감독상 시상식에 나선 임순례 감독은 “첫 번째 작품만이 감독의 것이고, 나머지는 변주일 뿐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인 감독상은 귀한 상”이라고 전했으며, 유현목영화예술상을 수상한 이란희 감독은 “올해 영화제 2개가 사라졌다”며 “어수선한 시국에 독립영화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냈으면 하는 유·무언의 마음에서 받게 된 거 같다”고 소회를 덧붙였다.

의미 있고 귀한 신인 감독상에는 <헌트>로 첫 메가폰을 잡은 배우 이정재에게 돌아갔으며 최우수 감독상은 이순신 3부작 시리즈 중 두 번째 작품으로 <한산: 용의 출현>을 연출한 김한민 감독에게 수여되었다. 마지막으로 2022 부일영화상의 하이라이트인 최우수 작품상에는 박해일·탕웨이 주연의 작품 <헤어질 결심>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화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빛난,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이었다. ㉠



2022 부일영화상 수상작 및 수상자

최우수작품상	헤어질 결심
최우수감독상	김한민 <한산: 용의 출현>
남우주연상	박해일 <헤어질 결심>
여우주연상	탕웨이 <헤어질 결심>
남우조연상	임시완 <비상선언>
여우조연상	이수경 <기적>
신인감독상	이정재 <헌트>
신인 남자연기상	이호제 <좋은 사람>
신인 여자연기상	최성은 <십개월의 미래>
각본상	정욱 <좋은 사람>
촬영상	김지용 <헤어질 결심>
음악상	조영욱 <헤어질 결심>
미술/기술상	정성진 외 1명 <한산: 용의 출현>
유현목영화예술상	이란희
남자 올해의스타상	변요한 <한산: 용의 출현>
여자 올해의스타상	이지은 <브로커>

2022년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호랑이 기운으로
시작했던 임인년(壬寅年),
그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습니다.
하지만 화승의
경영이념처럼 인화(人和)로
또 한 고개를 넘었습니다.
화승인 여러분의 노고에
고개 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하프의 선물처럼 부드러운 halff

CU와 컬래버레이션 상품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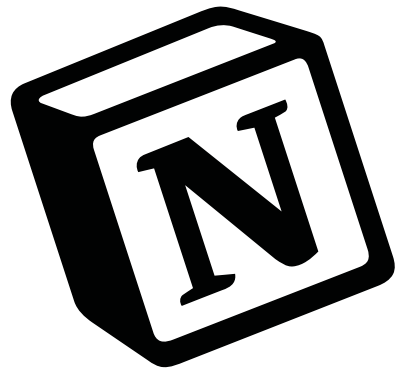


커피 음용 인구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에 라떼 바람을 일으킨 하프(halff)커피가 최근 CU와 함께 개발한 과자, 디저트, RTD(Ready to Drink) 커피 등 총 6종의 상품들을 선보였다. 하프에서 총 판매량 150만 잔을 기록한 시그니처 음료인 버터크림라떼를 모티브로 했다. 이미 시판되고 있는 완성된 커피 상품을 비롯해 과자, 쿠키슈까지 다양한 디저트 라인업을 완성했다.

고객의 특별한 미식 경험을 위해 기획된 이번 컬래버레이션 시리즈는 하프커피 메뉴 개발팀 및 마케팅팀이 레시피 개발에서부터 패키지 디자인까지 상품개발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국산 1급A 원유를 50% 이상 포함, 수십 차례에 걸쳐 시제품을 제조한 끝에 부드럽고 중독성 있는 크림 맛을 개발하였으며 기본 하프 버터크림라떼와 겨울에 어울리는 하프 말차크림라떼 2종도 출시되었다.

하프커피의 버터크림스틱은 비스킷 위에 버터크림을 발라 구워낸 2겹 구조의 과자로 풍부한 버터 향을 느낄 수 있으며 중독성 있는 단-짠(달고 짠) 맛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지난 11월 11일(빼빼로데이)에 당일 6만 개 이상의 판매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크림 쿠키슈는 버터크림라떼 맛의 크림이 한가득 들어간 슈 위에 바삭한 쿠키를 토핑한 냉장 디저트이다. 이 밖에도 팝콘, 감자칩, 아이스크림이 순차적으로 추가 출시되고 있다.

하프커피는 화승인더스트리가 설립한 식음료 프랜차이즈기업 ㈜여덟까니의 F&B 브랜드 중 하나다. 대한민국 대표 편의점 업체인 CU와의 이번 상품 컬래버레이션은 그동안 하프커피를 마시기 위해 핫플을 찾았던 MZ세대들에겐 더 없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하프커피와 함께하는 단짠 디저트, 이젠 가까운 CU편의점에서 즐길 수 있게 되었다. 70



일.잘.러가 선택하는 기록 툴, 노션Notion

서울대 김난도 교수는 중간 없는 승자독식의 세상 [Redistribution of the Average 평균 실종]을 '트렌드 코리아 2023' 키워드로 잡았다. 드림 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평균을 뛰어넘어야 한다. 계묘(癸卯)년 흑토끼처럼 높이 뛰고 끝까지 디깅(Digging)하며 시간과 열정을 소비할 당신. 머릿속 가득한 새해의 계획과 꿈을 기록해야 한다. 일.잘.러가 선택하는 기록 애플리케이션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자.



일 잘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생산성 앱, 노션

성공 신화가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은 메모다. 이순신 장군, 레오나르도 다빈치, 에디슨 그리고 에이브러햄 링컨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 인사들은 대부분 습관적으로 메모했다. 순간의 기억은 메모를 통해 기록으로 저장된다.

손글씨는 단기 기억이 필요한 순간의 좋은 메모 수단이지만 중·장기로 기억의 시점이 바뀌면 쌓여 있는 수첩 속에서 그 순간의 기억을 찾아내는 게 쉽지 않다.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필요한 메모를 직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앱이 만들어졌다. 메모 앱은 협업자와 자료를 동시에 기록·공유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었다.

안 쓰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혹은 하나의 앱만 써본 사람은 없다는 생산성 앱. 조직이든 개인이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막혀있는지는 한 번의 터치로 확인하고 당신은 진짜 생산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고민의 시작이다. 어떤 앱을 사용할까? 메모와 협업의 기능이 모두 포함된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앱이 노션이다. 노션은 'All in one workspace'를 추구하며 거의 모든 생산성 앱들과 교집합을 이루고 있다.

노션, 사용자만의 기능과 용도로 디자인 가능

노션은 노트, 문서작성 및 공유, 보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르는 다양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많은 것을 담고 있으니 프로그램은 무겁다. 메모 앱 사용자들 대부분은 부가 기능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한 기능에 특화된 앱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션, 그것이 알고 싶다'

- ✓ **노션은 예쁘다.** 직관성을 우선해왔던 메모 앱의 틀을 깼다. 카테고리별로 잘 꾸며진 수천 개의 기본 템플릿이 제공된다. 노션 커뮤니티에서 사용자들이 생산·공유하는 다양한 템플릿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 ✓ **노션은 하이퍼텍스트가 된다.** 위키 페이지를 만들어 홈페이지로 활용하거나 제한된 구성원의 공유 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
- ✓ **노션은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한다.** 테이블을 통해 구성된 데이터를 표, 칸반보드, 타임라인, 캘린더 등으로 보여준다. 개인의 데이터 관리는 물론, 위키 페이지를 통해 협업자와 공유하며 생산성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노션의 메모 앱 라이벌들



에버노트

메모 앱의 대명사다. 구글은 타인의 자료를, 에버노트는 자신의 기록이나 생각을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표현한다. 노트는 폴더에 분류하며 텍스트는 물론, 이미지의 글씨까지 검색된다. 스택(대분류), 노트북(중분류)까지만 세분되고 노트북에 노트들을 보관한다



구글킵(keep)

전형적인 메모 기능이다.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로 간편하게 메모를 작성하고 확인한다. 메모 카드 형식으로 텍스트뿐만 아니라 파일 첨부, 웹사이트 링크 등이 가능하다.



조플린(Joplin)

오픈소스 무료 앱이다. 특정 서버에 종속되지 않고 원하는 개인 클라우드에 노트를 저장하기 때문에 보안 문제에도 안심할 수 있으며 용량 제한 없이 저장할 수 있다. 폴더와 태그로 노트를 정리한다.



워크플로워(Workflowy)

트리 구조의 가벼운 앱이다. 생각나는 대로 메모하고 산재한 메모를 하나로 묶거나 펼쳐 볼 수 있다. 목록에 주제만 정해놓고 닥치는 대로 메모한 후 드래그앤드랍으로 자유롭게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노션은 레고에 비유한다. 설명서대로 만들어도 되고, 자기만의 워크스페이스를 꾸며도 좋다. 노션의 한 페이지는 블록의 합으로 구성된다.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웹페이지 링크 등을 블록으로 생성하여 페이지를 완성한다. 블록은 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임베드(embed)하여 구현한다.

노션을 사용하고 있다. 노션은 원하는 페이지만 웹에 공개할 수 있다. 공개 설정된 페이지는 웹에서 검색된다.

기록되지 않은 꿈은 사라진다. 기록하고 확인하며 꿈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단순한 앱 혹은 만능 기능을 갖춘 앱 어떤 것도 좋다.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내 것으로, 그리고 나의 꿈도 온전히 내 것으로 완성시켜보자. 7☺

2023 승승장구 일취월장 일잘러 메모 아이템

노션은 페이지의 합이다. 페이지가 앱 하나의 역할을 한다. 한 페이지는 보드(Board)를 만들고 다른 페이지에 To do list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트리(tree) 구조로 되어있어 하위 페이지를 연속으로 만들어 많은 자료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생용 대시보드, 강의 노트, 독서 리스트 등의 템플릿이 있다.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자녀 기록 습관을 위해 활용한다. 대시보드를 공유 페이지로 설정하면 학습 및 가족 일정을 함께 기록, 체크할 수 있다.

빠르게 성장하여 업계의 선두를 지키고 있는 당근마켓, 리더북스, 쏘카 등 많은 스타트업 조직들이 사내 위키 페이지와 홈페이지로



꿈에 걸리게 하면 드림메이커

-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 -

『걸리버 여행기』 이야기 줄거리

걸리버는 배에서 승무원과 승객들을 보살피는 선의(船醫)가 되어 항해를 떠난다. 폭풍우를 만나 처음 표류된 곳은 소인국 릴리퍼트. 6인치가 안 되는 소인들에 의해 걸리버는 온몸이 꽂꽂 묶인 채로 일어난다. 국왕을 만나게 되고 궁중에서 지내게 된 그는 소인국에 쳐들어온 적을 물리쳐주고 왕궁의 화재도 진압해준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는 것과 소변으로 화재를 진압했다는 이유로 죽어야 한다는 원성을 듣는다. 이에 서둘러 망명하게 되고 결국 영국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두 달여 만에 다시 여행을 떠난다. 낯선 섬에 도착했지만 놀란 선원들은 걸리버만 두고 도망친다. 이번에는 큰 사람들이 사는 브롭딩낙, 걸리버는 거인 농장주에게 잡히고 주인은 그를 데리고 쇼를 하며 돈을 번다. 나중에 왕비에게 팔리는 걸리버는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으며 왕궁에서 살지만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진 인형 같은 생활에 자유를 그리워한다. 우연찮게 상자처럼 생긴 그의 별장을 독수리가 낚아채 바다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세 번째 여행에서는 해적에게 붙잡혀 곤혹을 치르지만 목숨을 부지한 채 카누에 실려 바다에 표류된다. 여러 섬을 거쳐 하늘에 떠있는 섬, 라퓨타에 오른다. 허공을 떠다니며 사람들의 생활상을 목격하게 되고 기발하고 이상한 연구를 하는 이들이 있는 바니발리의 수도 리가도를 거쳐 마법사의 섬인 글럼덱드립에도 간다. 그리고 불멸의 존재 스트러드블랙이 있는 렉넥을 거쳐 일본에 도착하지만 네덜란드 배를 타고 고국으로 귀환한다. 마지막 여행은 선의가 아닌 한 배의 선장이 되어 떠난다. 그러나 선상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걸리버는 미지의 섬에 버려진다. 야후라 불리는 기분 나쁜 인간들을 보게 되지만 그곳은 말 모양을 한 지성체(馬人), 휘넘이 지배하는 나라였다. 고귀한 휘넘이 지닌 덕성에 감탄하며 그 또한 닮고 싶어한다. 하지만 결국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걸리버는 가족이 있는 영국으로 돌아온다.

걸면 걸리는 걸리버,

영국의 소설가이자 풍자문학의 대가였던 조지 오웰이 극찬했던 작품, 소인국-대인국의 이야기만으로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 독자들에게도 무한 상상력과 재미를 선사하는 동화이자 소설이 있다. 풍자와 비판으로 가득한 조나단 스위프트의 『걸리버 여행기』이다. 독특한 영감과 색다른 시선으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창의적인 생각과 비판 정신, 이에 더해 새로운 꿈을 품게 한 걸리버의 기상천외한 여행에 동행해보자.



인간 본성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담은

18세기 메타버스

어린 시절 한 번쯤 동화로 접했을 『걸리버 여행기』, 기발한 소재의 이 작품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아일랜드 출신의 조나단 스위프트(1667-1745)에 의해 탄생했다. 작가이자 성공회 신부, 그리고 정치평론가이기도 했던 그는 5년여의 집필 기간을 거쳐 1726년 이 소설을 세상에 내놓았다. 당시 영국 사회의 타락상과 부패한 정치 상황을 신랄하게 풍자했다는 이유로 출간과 함께 엄청난 이슈와 인기를 얻었다.

『걸리버 여행기』는 주인공 걸리버가 항해 중 표류되면서 소인국과 대인국, 하늘을 나는 섬나라와 말의 나라에서 겪은, 총 4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오랫동안 인간을 짐승에 비유하고 말을 덕성을 지닌 고귀한 존재로 묘사하는 등 다소 파격적인 부분은 생략한 채 아이들에게 흥미를 끌 만한 소인국, 대인국 위주 이야기만 엮어 아동도 서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20세기 정치풍자의 대가이자 『동물농장』의 저자인 조지 오웰이 극찬한 소설 작품이다.



70 이 작품은 자신보다 작은 이들을 업신여기고 많이 가진 자들에겐 굽신거리는 사람들, 쓸모없고 허황한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로 가득하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의 세상을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담고 있다. 작가의 남과 같지 않은 생각과 시선으로 그려낸 『걸리버 여행기』는 300여 년이라는-시공을 초월해 지금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인간 군상과 정치·사회상을 보여준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이 풍자를 바탕으로 인간 본성을 깨달아가는, 자각 여행이라고 한다. 소인국 릴리퍼트 편에서는 추악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과 자각을, 대인국 브롭딩택에서는 인간으로서 성숙해가는 과정을, 라퓨타를 비롯해 바니발리, 그럽덱드립 등에서는 학문과 역사, 사회 전반의 실체에 대해 파악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마지막 휘념국에서는 인간 본성을 알아챌으로써 주인공 걸리버가 변화해가는 모습을 그려냈다는 것이다.

『걸리버 여행기』의 특징 중 하나라면 독자들에게 부감 효과를 선사한다는 것. 각각 다른 4개의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다는 느낌 때문일까, 그 안에 들어가 개입하고 조종하고 싶게 만든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경제·문화 활동이 이뤄지는 가상세계를 뜻하는 '메타버스(Metaverse)'처럼, 이 작품을 읽다 보면 마치 18세기 버전의 메타버스를 경험하는 듯하다.

남다른 사고로 남과 함께 꿈꾸게 하는

21세기 드림메이커

『걸리버 여행기』에 담긴 독특한 사고와 소재 때문일까, 이 작품은 출간 이후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쳤으며 많은 창작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다. 세계 최고의 검색엔진이었던 야후도 그 한 예다. YAHOO는 'Yet Another Hierarchical Officious Oracle'의 이니셜이지만 창립자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는 이성만이 아니라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본능에 충실한 야만족(야후)을 떠올려 네이밍했다고 밝혔다. “결면 걸리는~”이라는 광고로 화제를 모았던 국내 H사의 휴대폰 단말기 명칭 또한 이 소설에서 차용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라퓨타 제국과 그곳을 움직이는 비행석을 둘러싼 모험을 그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천공의 성, 라퓨타'도 『걸리버 여행기』에서 제목과 모티브를 따왔다. 20세기 후반에는 글로벌화를 깨리는 현상을 빚낸 '걸리버 효과'라는 용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대규모 업체가 소규모 경쟁자에게 포획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작은 벤처업체에 발목이 잡혔을 때 사용하곤 했다. 마치 걸리버가 소인국 릴리퍼트에서 온몸이 실로 칭칭 묶여 움쭉달싹 못하는 경우를 비유한 것처럼.

『걸리버 여행기』는 18세기 영국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 모독이라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풍자와 고발의 메시지는 후대의 독자들에게 사고의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영향력 있고, 창의력 넘치는 도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조나단 스위프트는 드림메이커이지 않을까. 그가 만들어낸 세계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꿈을 찾아내고 완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1세기, 삶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진 세상에서 남다른 생각과 시선으로 남들과 함께하는 꿈을 꾸어보자. 결면 걸린다는 광고 비유처럼 당신 또한 누군가의 꿈을 걸고 이를 수 있게 도와주는 드림메이커가 될 수 있다. 이에 앞서 『걸리버 여행기』의 완독을 권해본다. 소설로만 읽기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동해가 우리 영토, '한국해(Sea of Korea)'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70



HWISEUNG NEWS

화승소재, BGF에코머티리얼즈와 MOU 체결

미래 복합소재 및 친환경 소재 공동 연구개발 위한 MOU



지난 12월 9일 화승코퍼레이션의 글로벌 화학소재 전문 자회사인 화승소재(대표 허성룡)가 BGF그룹의 소재 부문 계열사 BGF에코머티리얼즈(前코프라, 대표 홍정혁)와 미래 복합소재 및 친환경 소재의 공동 연구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경남 양산 화승소재 본사에서 화승코퍼레이션 통합기술센터 윤우원 센터장과 이무정 상무, BGF에코머티리얼즈 박현달 부사장 등이 참석, 업무협약을 하고 R&D 전략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화승소재의 고무 기반 엘라스토머 탄성체 기술, BGF에코머티리얼즈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기술을 융합해 ▲자동차·산업용 기능성 복합소재 설계 및 제품화 기술 개발 ▲PIR(Post Industrial Recycled) 및 PCR(Post Consumer Recycled) 등 업사이클링 소재의 고부가가치화 ▲환경 안전 특화 소재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개발 협력에 나선다. 나아가

전사적인 비즈니스 차원에서 핵심 원·부재료의 교류는 물론, 각사의 글로벌 생산거점 및 영업망 연계를 통한 사업기회 확장 등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사는 기존의 금속 부품을 대체하면서 기능성 및 경량화를 구현하는 복합소재 개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져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는 물론,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 산업에 부응하는 고기능성 소재 개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화승코퍼레이션 윤우원 통합기술센터장은 “다양한 고기능성 및 복합소재 전문 글로벌 기업인 화승소재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분야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BGF에코머티리얼즈가 기술 파트너로 제휴함으로써 자동차 및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친환경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소재를 적극 개발해 국내 및 해외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화승그룹,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쌀 기부

지역사회 장애인 및 복지 종사자 위해 1,600kg 지원



지난 12월 7일 화승그룹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승희)에 쌀 1,600kg을 기부했다. 그룹홍보팀 김병호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기부 행사에서 이승희 관장은 “연이은 코로나19 상황과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별도의 지원금 없이 직접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입장에서는 아주 큰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기부한 쌀은 지역사회 장애인 및 복지 종사자들의 식사로 지원된다.

화승그룹은 이번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쌀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 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취약계층 주민 등에도 직접 쌀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화승그룹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화승꿈틀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각종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함께 펼쳐왔으며 지난봄에는 노후된 차량으로 지역 내 장애인 서비스 제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복지관에 맞춤형 차량을 제

공하기도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함이 절실한 연말연시, 화승그룹은 어려운 지역민들을 위한 나눔 행사를 오는 2023년에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70



화승 100년을 향한 화승 70년 역사에 동참해주세요!



참여방법

화승 70년을 추억할 수 있는 사진이나 물건, 그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 보내주세요. 흑백사진, 서류, 사원증, 월급봉투, 수첩, 편지, 각종 기념품 등 화승의 역사와 세월의 흔적을 곱씹을 수 있는 물품들을 모집합니다. #동양고무 #풍영화성 #화승화학 등 화승그룹의 옛 이름이 들어간 자료 또한 열렬히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주소 :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5층
전화 : 051-850-7037
이메일 : illwook.sim@hscorp.com
*우편, 택배, 이메일 접수 모두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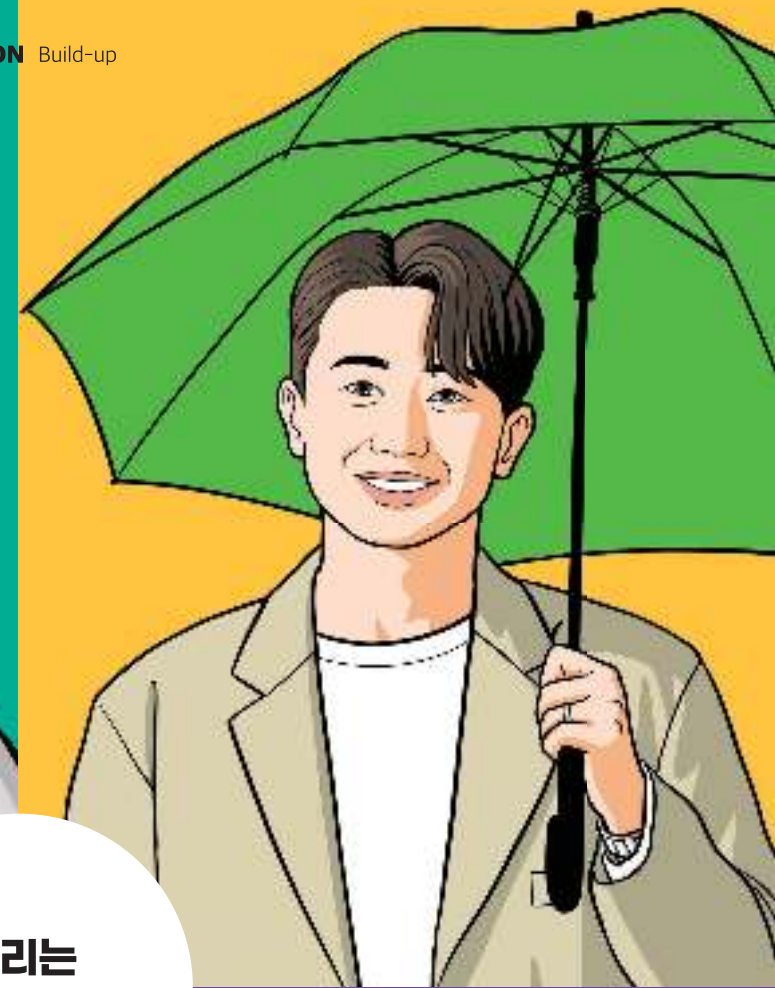
정답

숨은그림찾기



날말퀴즈

현	충	일		물	미	이	라
충			물	레	방	아	이
사	육	신	장	사			언
		문	방	구	능		스
장	보	고		손	오	공	클
유			담	징	염		럽
유	목	민		기	도	남	
서		며		스		녀	공
		느	칸			노	동
개	구	리		보	건	소	회



우리는
메이커다



Rain Maker

화승케미칼
배재익 매니저

Pace Maker

화승T&C
박건국 사우



Dream Maker

화승케미칼
김지훈 선임

Chance Maker

화승소재
바실리엥 콘스탄틴 책임

우리는 라이프 밸런스를
즐기는 화승인이다



우리는 한방이 있는
화승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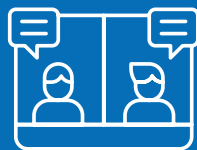
화승은
변화하는
메이커다

우리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다스리는 화승인이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포착하는 화승인이다





화승그룹 화상회의 에티켓

07 Rules of Video Conference Call Etiquette



01 **Don't be late!** 시간약속은 철저히!

예약 시간 10분 전까지는 입실해주시길 바랍니다.
회의 전 캠, 마이크, 스피커 등 장비 점검을 미리합니다.



02 **Introduce Everyone!** 모두를 소개합니다!

미팅에 참가한 모든 사람을 미팅 초반에 반드시 소개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참여를 독려합니다.



03 **Turn on the Camera!** 카메라는 켜주세요!

사진이나 이름만 적혀 있을 경우,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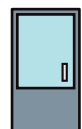
04 **Sit Still!** 회의 시 가만히 앉아서!

회의룸 내부에선 큰 소음이나 행동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진행자의 지시를 따르고 미발언 시 음소거를 합니다.



05 **Stay Focused!** 회의에 집중하기!

회의 시 취식 및 화면 밖으로 나가거나 폰 사용 등
다른 행동은 자제해주시길 바랍니다.



06 **Close the Office Door!** 사무실 문은 닫기!

다른 요인들로 인해서 회의가 방해 받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 문을 닫아 소음을 방지하기 바랍니다.



07 **Log Out Smoothly!** 원만한 퇴장하기!

회의 종료 및 퇴장 시 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확인 후
로그아웃하시길 바랍니다.



CAR
LUMI

화승케미칼
HWASEUNG

©2023 HWASEUNG CHEMICAL, Inc. All rights reserved.

DREAMMAKER

꿈,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허망하다.
꿈, 만들고 실현하려고 노력하면 희망이다.
화승, 희망이 있는 꿈을 만들어내는 드림메이커다.



HWASEUNG

화승그룹